

2019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Ⅱ)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중세의 크리스티교 사상에서도 발견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이용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데카르트는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체라는 두 개의 실체로 설명한다.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자는 주체가 되고, 그러하지 못한 자는 객체가 된다.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 주체가 되지만, 영혼이 결여된 자연은 복잡한 구조의 기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베이컨의 과학 사상에서도 볼 수 있다. 베이컨은 ‘지식이 곧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지식이란 자연에 대한 지식이며, 힘이란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결국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나]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를 가장 숭배한다. 그들은 소가 영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나아가 어느 누구도 쇠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소를 도살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에게 말해 두지만, 쇠고기를 먹는 가비(Gavi)라고 불리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도 감히 소를 도살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가 자연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죽었을 때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다. 또 그들은 쇠똥으로 집을 온통 칠한다. 또 다른 한 가지 관습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왕과 신하와 다른 사람들은 흙바닥에 앉는다. 누군가 그들에게 왜 좀 더 고상하게 앉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바닥에 앉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땅은 아무리 숭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절대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환경 윤리의 기반으로 권할 때가 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연약하고, 현재 지구는 인간의 개입으로 영구히 파괴될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인간은 이 위태로운 세상을 지키는 청지기라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을 과대평가해서 나온 주장이다. 지구의 지질학적 규모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대지에 전혀 힘을 미칠 수 없다. 자연이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수 있지만, 수백만 종에 달하는 곤충과 진드기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보다는 오히려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환경 윤리, 즉 황금률이 요청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

[라] 폴리네시아 인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식량, 충분한 건축 재료 등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섬을 발견하여 정착하였다. 그들은 번창하였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몇 세기 후 그들은 돌로 단을 쌓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돌 제단과 석상은 커졌고, 석상은 10톤이나 나가는, 붉은 돌로 만든 왕관을 쓰기 시작했다. 각 씨족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웠을 것이다.

결국, 사람과 석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숲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서 숲이 급속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밭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기 위해, 카누를 만들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 석상을 옮기기 위해 나무를 베었다. 숲이 사라져 감에 따라 석상을 운반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밧줄의 재료와 목재도 사라져 갔다. 카누의 재료인 나무들이 멸종하면서 고래도 식탁에서 사라졌다. 숲이 파괴되어 흙이 비바람에 침식되고, 햇볕에 말라 척박하게 되었으므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었다. 남아 있는 작은 석상들의 훌쭉한 뺨과 앙상한 갈비뼈는 당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잉여 식량이 사라지면서, 그때까지 정교한 분업 사회를 이끌어 오던 추장, 관료, 성직자들이 힘을 잃었다. 중앙 집권적 정부는 각 지방의 혼란과 함께 무너지고 전사들이 세습되던 추장들의 권한을 빼앗았다. 1700년을 전후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피해 동굴 생활을 시작하였다. 1770년 전후에는 서로 경쟁 부족의 석상을 무너뜨려 머리 부분을 떼어 냈으며, 1864년에 이르러 드디어 마지막 석상이 내팽개쳐졌다. 이렇게 이스터 문명은 쇠퇴하였다.

[마] 아파트 단지는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위 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바닥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다. 깨끗한 자개상도 벌써 다섯 개나 모아 뒀다.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소반도 있다.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 없다. 선반이나 책장, 고가의 장식장도 적잖다. 튼튼한 의자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버리는 이유가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흠집이 났다고,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산 지 오래되어 싫증이 났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해 버리는 모양이다. 버리는 일에도 무지 주저가 없어 보인다. 버려진 물건들의 번듯함과 엄청난 양을 생각하면 몹시 우울해진다. 이렇게 멀쩡한 것들을 이토록 손쉽게 버리다니, 적어도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다.

망치를 들고, 때로는 드릴을 들고 폐기물 수거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물건들을 해체한다. 수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번듯한 물건이라도 가차 없이 장도리로 요절내고 해머로 박살을 내서 신속하게 부피를 줄인 뒤, 차에 싣는다. 차에 싣리는 순간 그것들은 '되살려 쓸 여지가 있는 자원'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어 버린다.

내가 주로 눈독을 들이고 반가워하는 것들은 버려진 목재들이다. 플라스틱 가구들은 그 고형성 때문에 변형도, 재활용도 힘들다. 태워도 안 되고, 묻어도 곤란한 버려진 플라스틱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심란해진다. 하지만 목재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그럴듯한 '다른 물건'이 될 수 있다. (중략)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별 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주로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얻는데,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땅 밑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오래지 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점,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제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특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조력, 파랑 에너지 등 해양 에너지에 주목한다. (중략)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해양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은 밀물과 썰물, 파랑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 해양 온도와 같은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온실가스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중략)

바다는 우리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에너지의 연구와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력 확보, 이제 바다로 눈을 돌리자.

**1** 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E국이 있다. A의 소득은 300이며 B의 소득은 150이라 가정하자. 현재 E국의 정부는 A와 B에게 20%의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평균 소비 성향이란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조세를 뺀 금액)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을 Y, 소비를 C로 표시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frac{C}{Y}$ 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240 이상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6이며 가처분 소득이 0보다 크고 150 이하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8이라고 가정하자.

- (1)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A와 B 소비의 합)를 구하시오. [10점]
- (2) 경기침체에 빠진 E국의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한다. 세제 개편안 (가)와 (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 (가)의 경우 A와 B의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세제 개편안 (나)의 경우 고소득자 A의 소득세율은 15%로, 저소득자 B의 소득세율은 0%로 각각 낮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각각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를 구하시오. 구한 값들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안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총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지(따라서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10점]
- (3) E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frac{\text{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text{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E-계수'라 하자. E-계수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E-계수를 각각 구하여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와 비교한 후,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앞의 (2)번 문항에서 구한 답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득 재분배'라는 목표와 '경기 변동 조절'이라는 목표를 한 가지 정책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보 기>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2. 정부는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시장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활발해 경기가 과열되다가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하곤 한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